

V.V.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과 동아고고학회

Reexamination of V.V.Ponosov' excavation on Bohai capital(Shangjingcheng),
Ning'an, Heilongjiang and the Far Eastern Archaeological Society(Toa Koko
Gakkai) of Manchuguo

강인옥*

目 次

- | | |
|--|--|
| I. 서론
II. 포노소프의 발해상경성 조사
1. 포노소프의 학문적 배경
2. 포노소프의 상경성조사 | III. 고찰: 포노소프 조사의 배경과 영향
1. 19세기 러시아의 동방학과 하얼빈 고고학
파의 성립
2. 동아고고학회의 발굴에 미친 영향
IV. 결론 |
|--|--|

〈국문요약〉

본 고에서는 1931년 9~10월에 이루어진 포노소프(V.V.Ponosov)의 발굴을 통해 발해 고고학의 성립에서 하얼빈 고고학자들의 숨겨진 역할을 재조명했다. 포노소프의 上京省 발굴은 급박한 정치상황과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하얼빈의 고고학자들이 전력을 다해서 일구어낸 최초의 발해 고고학에 대한 정식 조사사업이었다. 하지만, 그 조사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滿洲國의 성립으로 발해발굴은 일본의 어용조직인 東亞考古學會 측으로 넘겨졌다. 이에 동아고고학회에 의해서 포노소프를 비롯한 러시아 발굴단의 노력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만주지역의 조사를 전담하여 만주를 일본의 역사에 연결시키고 滿鮮史觀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포노소프의 조사는 상당히 정확한 유구평면도와 트렌치를 통한 유구확인, 출토 유물의 박물관 전시 등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매우 수준 높은 연구였다. 또한, 그의 뒤를 이은 동아고고학회의 조사는 포노소프의 자료와 조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포노소프의 상경성 발굴로 상경성은 발해 고고학을 대표하는 유적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20세기 초 중반 동아시아 고고학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발해 발굴의 시작을 만주국의 성립과 함께 이 지역에 진출한 동아고고학회의 발굴로 인식했던 과거의 인식은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포노소프를 비롯하여 20세기 전반기에 하얼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러시아 고고학자들은 흑룡강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편년체계를 세우는 물론, 이후 신중국의 만주지역 고고학연구에 공헌했음이 분명하다. 향후 발해고고학은 물론,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사 연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

* 경희대 사학과.

어야 할 부분이다.

주제어 : V.V.포노소프, 상경성, 발해, 동아고고학회, 하얼빈, 동성문물연구회, 고고학사, NYa.톨마초프

I. 서론

러시아의 크라스키노(Kraskino) 성지와 함께 중국의 발해고고학을 대표하는 발해 上京城¹⁾은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 4개국이 실제 발굴조사를 한 유일한 발해유적이다. 현재 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국조사팀 이외에도 1931년에 러시아 학자 V.V. 포노소프(Ponosov)가 발굴조사를 했고, 뒤를 이어 1933~34년은 일본의 동아고고학회 등이 조사했다. 또한 1963~65년에는 북한의 발굴대가 중국고고학자들과 합동발굴을 했다. 이와 같이 발해 상경성의 조사는 단순한 유적 하나의 의미를 넘어서 발해 고고학의 출발점인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이한 발해 고고학에 대한 시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학사적인 의의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발해 상경성의 조사에서 1920년대 이후 하얼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러시아고고학자들의 역할은 간과한 채 일본의 군국주의가 중국과 몽골을 침략하면서 조직된 동아고고학회가 조사하고 발간한 『東京城』(1939년 東方考古學叢刊의 第5冊으로 출간)을 발해의 최초 발굴 및 보고서로 간주하는 형편이다. 반면에 동아고고학회보다 2년 앞선 1931년에 상경성을 발굴하고 목단강 유역 일대의 발해유적을 조사한 포노소프의 발굴은 그간에 거의 무시되어 왔다. 다만 지난 2009년에 발간된 중국조사팀의 발해 상경성의 보고서에 중문 번역으로 재수록 되었을 뿐이다²⁾. 하지만 그나마도 포노소프의 연구배경 및 의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실 포노소프의 발굴은 우연하게 이 지역을 조사하는 탐험대 식의 1회성 조사가 아니었다. 포노소프의 조사는 현재 흑룡강성 고고학의 기초를 확립한 1920~50년대에 하얼빈에서 활동한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조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발해고고학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고고학의 형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조사였다. 하지만 기존의 발해 고고학

1) 이하 본문에서는 원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경성’으로 표기를 통일하겠다.

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上·下, 文物出版社, 2009, 652~659쪽.

연구에서는 그의 조사에 대한 분석은 결여한 채 단순히 발굴 자체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는 정도이거나 정식 조사가 아니었다는 일본 측의 연구를 반복해서 따르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³⁾.

최근까지 포노소프의 연구가 간과되어 온 데에는 그를 둘러싼 현대 정치적인 상황에도 이유가 있다. 하얼빈의 러시아고고학자들은 소련을 피신한 백군파들이 주축이어서 여러 정치적인 세파(러시아혁명, 일본의 만주국 설치, 신중국의 성립)에 휩쓸려서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백군파 학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⁴⁾ 하얼빈의 고고학자들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실제적인 접근이 조금씩 가능하다. 지금 학계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쓰여지고 있는 ‘발해문화’ 또는 ‘발해고고’들은 사실상 동아고고학회가 발간한 『東京城』과 토리아마 키이치(鳥山喜一)의 1930~40년대의 연구에 대부분 기인한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아고고학회의 발굴은 포노소프의 발해발굴 자료에 근거했으며, 토리아마는 역사학자로 정식 고고학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즉, 상경성이 발해가 남긴 것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발굴로 증명하는 최초의 작업은 포노소프가 이끌었던 하얼빈의 고고학조사팀이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학사적인 검토는 단순히 최초의 발굴자를 규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발해고고학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립 및 국가 간의 난맥상을 보이는 발해고고학에 여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고에서는 포노소프의 발굴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후 동아고고학회의 발굴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하여 본 고에서는 하얼빈 러시아 고고학 연구의 배경 속에서 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에 대한 검토를 하고, 동아시아

3) 상경성에 대한 연구사에서 러시아의 연구들은 일방적으로 무시되었다. 예컨대 일본학계에서는 포노소프의 발굴을 ‘유물을 채집과 단기간의 트랜치 발굴로 본격적인 발굴은 아니다’라고 하여 아예 연구사의 획기에서 제외한다(早乙女雅博, 「渤海都城東京城調査」, 『東アジアの古代都市論』, 2005. 酒寄雅志, 編, 「東亞考古學會の東京城調査」, 『東亞考古學會と近代日本の東アジア史研究』平成 16年度~平成 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2007.에서 재인용). 또한 중국에서는 만주국과 하얼빈 러시아인의 발굴을 한데 뭉뚱그려서 제대로 된 발굴이 아니었다고 폄하한다(李陳奇 趙虹光, 「渤海上京城考古的四個階段」, 『北方文物』, 2期, 2004), 한국에서도 상경성의 연구사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중국자료만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없이 신중국 이전의 연구를 경시하는 경향은 동일하다(김은옥, 「발해 상경성의 발굴 및 고고연구 현황」, 『고구려발해연구』 제 45집, 고구려발해학회, 2013.). 분명한 점은 어떠한 문헌에서도 하얼빈의 러시아 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비판이 아니라 2차문헌들을 반복적으로 재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4) 대표적인 예는 통구스-만족의 연구로 유명한 쉬로코코로프는 백군파로 상하이로 망명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소련시절에 러시아 학계에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족학을 중심으로 탄압받거나 숙청당한 연구자들에 대해서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조금씩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르마킨 편, 2002, 2003『탄압받은 민족학자들』 1,2권)(노어)

아 발해고고학 연구 속에서 의의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하여 발해 상경성의 연구사를 재정립하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발해고고학의 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세우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포노소프의 발해상경성 조사

1. 포노소프의 학문적 배경⁵⁾

V.V. 포노소프는 1899년 러시아 우파시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현재의 우크라이나인 키예프에서 키예프상업학교를 다녔다. 포노소프가 본격적으로 고고학에 종사하게 된 시절은 바로 이때로 당시 그는 키예프 인근의 동석기시대(eneolith) 유적을 조사한 바가 있다⁶⁾. 이 당시에 러시아는 주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박물학을 같이 전공하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왕립러시아지질협회(Имперское Росси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의 지부를 설치하고 활동하는 방식이었다. 이미 러시아는 18세기 이후 유럽의 발달된 고고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였고, 그 연구를 시베리아로 확대하던 시점이었다⁷⁾. 또한

5) 포노소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하얼빈 출신 고고학자들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각국에 흩어져있으며, 서로 상이한 부분들도 많다. 필자는 포노소프의 약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했다. 우선 포노소프의 고고학적 조사에서 1차적으로 참고한 자료는 포노소프 자신이 1959년에 쓴 자술서인데, 필자가 입수한 것은 1992년에 중역되어 중국에서 출판된 자료이다(V.V.Ponosov 『北滿考古學史』, 『黑龍江考古民族資料譯文集』(第一輯) 1992.). 또한, 포노소프의 하얼빈 시절에 제자였던 V.N. 제르나코프가 영어로 쓴 전기가 있는데, 이 역시 포노소프의 제자가 같이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V. N. Jernakov, 1972, Vladimir Vasilievich Ponosov, University of Melbourn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Parkville, Vic. : Dep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Melbourne, 1972, Russians in Australia, no. 3.) 한편, 러시아어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했다. (알킨, 1990 만주에서 포노소프의 고고민족학적 연구 『제 2차 네벨스키 기념논문집』, 하바로프스키알킨, 1994, 중국에서 톨마초프의 활동 『제 2차 베르소프 기념논문집』 예카테린부르크알킨, 1998, 만주의 러시아고고학자 활동에 대한 자료들 『하얼빈 및 동청철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파블로프스카야, 1998, 1932~45년 러시아학자들의 만주 연구학사 『극동 러시아와 중국동북지방 : 상호교류의 역사와 협력의 전망』 (이상 노여)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의 러시아박물관에 소장된 포노소프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메나이렌코, 2008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한 러시아 이주민들의 활동 - 샌프란시스코 러시아문화박물관의 유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모스크바.)

6) 알킨, 1990 만주에서 포노소프의 고고민족학적 연구 『제 2차 네벨스키 기념논문집』, 하바로프스키.

7) 강인욱, 2001 「17~18세기 시베리아 고고학의 형성과 발전」, 『러시아연구』 11-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그의 선배적인 톨마초프 역시 우랄지역에서 고고학을 조사한 경력이 있다. 이런 그의 경력은 1920~30년대 러시아 하얼빈의 학자들이 단순하게 호고에 대한 취미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제정러시아의 고고학적 연구기반을 하얼빈에 도입한 것을 의미한다.

포노소프가 하얼빈으로 이주한 시기는 1922년으로 이후 1961년까지 40여 년간 하얼빈에서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고고학적 활동을 전개했다. 하얼빈 정착 이후 그의 연구역정은 하얼빈을 둘러싼 정치적인 판도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세분된다. 제 1기는 1922~1931년으로 동성문물연구회(ОИМК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기, 제 2기는 1929~45년으로 일본의 괴뢰정부 만주국 치하에서 활동하는 시기, 제 3기는 1945~1961년의 신중국시기의 활동 시기, 그리고 4단계는 중국에서 호주로 이주해서 활동한 시기이다.

제 1기는 1922~1931년까지는 하얼빈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동성문물연구회의 회원 및 1923년에 설립된 동정철도 박물관⁹⁾을 중심으로 활동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러시아 하얼빈의 주요 고고학적 활동은 우랄 출신의 N.Ya.톨마초프와 A.S.루카쉬킨 등이 선도하였으며, 포노소프는 그들을 보조하는 연구원 자격으로 본격적인 고고학작업을 시작했다.(사진 1) 1928년에 중화민국의 동청철도 일대의 행정구역인 東省特別區의 行政長官인 張煥相의 강제해산령으로 해산되었고, 박물관은 동성특구연구회라는 조직에 편입되었다. 이에 포노소프는 E.E.아네르트(Anert)와 함께 1929년에 박물관과는 별도로 청년들의 동호인 모임인 하얼빈 기독교청년회 자연과학 및 지리학 클럽¹⁰⁾을 만들었다. 이 청년회 안에서 포노소프는 고고-민족학 연구를 주로 하는 “프르제발스키 연구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고고학을 지도하며 함께 조사를 했다¹¹⁾. 이후 1931년에 동성특구문화발전연구소가 설립되고, 포노소프는 東城特區文化發展研究所의 박물관¹²⁾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포노소프가 구석기 유적인 顧鄉屯과 상경성의 발굴을 수행했던 시점이 이 때이다(사진 2).

8) ОИМК는 ‘만주성연구회’를 뜻하는 Общество изучения Маньчжурского края의 준말이다.

9) 원문은 Музей Китайско-Восточная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로 보통 케베체데(КВЖ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10) 원문은 “기독교청년 과학 및 지리클럽”이라는 뜻으로 Клуб естествознания и географии Христиан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ых людей이며 약칭은 ХСМЛ이다.

11) 원문은 국립 프르제발스키 추종자 조직이라는 뜻인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жевальцев”이다. 이는 19세기 말에 중앙아시아를 탐험하고 조사한 러시아 박물학의 아버지 니콜라이 프르제발스키(1839~1888)의 이름을 딴 연구소로,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개인적인 조직으로 지속되어서 하얼빈의 젊은 고고학자들을 양성했다. 실제로, 그의 제자 중에는 소련으로 돌아가서 女眞史를 전공한 A.I. 말라프킨, 말갈고고학을 처음으로 조사한 A.K. 젤레즈냐코프, 사진을 담당했던 V.N. 알린, 그리고 아십하 일대의 많은 유적을 발견한 L.M. 야코블레프 등이 그의 팀에서 양성되었다. 이 고고학연구회는 동성문물연구회의 러시아인들이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자들을 양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포노소프의 팀은 이후 발해의 상경성 발굴에도 투입되었다.

12) 원문은 Института изуч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обого района Восточных провинций이다.



〈사진 1〉 1929년 2월에 촬영한 하얼빈의 러시아고고학자들. 아래 줄 왼쪽부터 루카쉬킨, 윗줄 왼쪽 첫 번째에는 톨마초프, 그 다음은 제르나코프.(프란켄 외, 2010에서 인용).



〈사진 2〉 1933년도의 1월의 포노소프와 하얼빈 고고학자(하얼빈박물관의 민족학실, B.E.라리체프 소장, C.A.알킨 제공)
(아래열 좌측부터 A.S.루카쉬킨, E.E.아네르트, A.Ya.아브도센코프, 고바야지, V.Ya.톨마초프위열 좌측
부터 Li Jiazui V.N.첼르냐코프 M.이블레프 V.V.포노소프)

제 2기는 1932~1945년으로 일본의 만주침략에 따라 만주국이 성립되고 하얼빈의 일본의 실질적인 점령을 받는 때이다. 일본의 하얼빈 점령에 따라 하얼빈의 고고학관련 기구들은 만주국 소속을 재편되었다. 동성특구문화발전연구소과 그 부속 박물관은 일본인들의 만주 지배가 공고히 됨에 따라 新京(현재의 長春)에 세운 大陸科學院에 강제통합되어서 대륙 과학원 하얼빈분소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포노소프가 속해있던 동성특구문화발전연구소는 1939년부터 만주국의 大陸研究科學博物館¹³⁾으로 바뀌었다. 포노소프는 실장의 직책으로 대륙연구과학박물관에서 근무하며 박물관의 고고학적 업무를 전담했다.

세 번째 단계는 1945~1961년 사이로 일본이 패망한 이후 신중국이 성립된 시점이다. 하얼빈에 일본인들이 패망한 이후 1946년까지 소련군이 진주하고 이후 중국공산당이 하얼빈을 장악했다. 이러한 혼란기에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은 자체적으로 하얼빈 자연과학 및 민족학 협회¹⁴⁾을 만들어서 고고학관련 활동을 계속했다. 이 협회는 회원이 129명이며 1949년까지 존재하며 고고민족학 관련하여 모두 65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다고 되어있다¹⁵⁾. 하지만 이때에 조직된 하얼빈 자연과학 및 민족학협회에서 포노소프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어서, 그의 활동은 다소 애매하다¹⁶⁾. 포노소프가 다시 고고학계에서 직업을 가지는 때는 1957년으로, 당시 중국은 만주국 패망이후 중국 동북지방이 안정되자 흑룡강성에 박물관을 재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얼빈 고고학의 토대를 세웠던 포노소프를 초빙하여 재건시켰다. 또한, 그는 1957~1961년까지 흑룡강성 박물관에서 근무하며 하얼빈 러시아학자들이 조사했던 유적들의 카탈로그, 지도, 유물 정리 등에 종사하며 중국학자들을 지도했다.

제 4기는 흑룡강성박물관의 업무가 마무리 된 이후 그가 호주로 이민을 가서 거주한 시기이다. 그는 1961년에 호주로 이민을 가서 브리스번의 퀸스랜드대학교 인류학박물관(Anthropology Museum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근무했다. 여기에서 그는 학문적 활동을 멈추지 않고 Moreton Bay지역 일대의 패총을 조사하는 등¹⁷⁾ 불모지인 호주의 고고학에 기틀을 세우는 데 기여했고, 1975년에 별세했다.

일생을 흑룡강지역의 고고학에 바친 포노소프의 업적은 발해 상경성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 조사 이외에도 흑룡강성 일대의 여러 유적들을 목록화하고 후학들을 양성했다는 데에

13) 원문은 Музе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Да-Лу이다.

14) 원문은 Харбинское общество естествоиспытателей и этнографов이다.

15) 譚英傑, 1986, 「解放前俄國人在黑龍江的學術團體及其考古活動簡述」, 『北方文物』 2期.

16) 하얼빈 고고학에서 포노소프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감안한다면, 그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아마 만주국 기관에서 부역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빠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17) PONOSOV, Vladimir Vasil'evich 1965 Results of an Archaeological Survey of the Southern Region of Moreton Bay and of Moreton Island (1963~1964).

있다¹⁸⁾. 또한 대부분의 하얼빈 거주 고고학자들이 1940년대를 전후하여 불안한 정세와 탄압을 견디지 못해 사망으로 흩어진 데에 반해, 포노소프는 하얼빈의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에 잔류를 택했다. 그는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12년간이나 하얼빈박물관에 남아서 수십 년간 조사한 연구자료 들을 다 정리해서 중국인들에게 건네주었으며, 고고학자가 전무했던 흑룡강지역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다.

이와같이 만주지역 고고학의 연구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포노소프의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점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많은 관련이 있다. 만주국 치하에서 일본인들은 러시아인들의 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탄압했으며¹⁹⁾, 신중국 역시 자국의 연구업적을 강조하며 러시아인들의 연구와 업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경시했었다. 또한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소련과는 이념적으로 대립한 백계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국에서조차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의 원고인 하얼빈 러시아인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한 [北滿考古學史]는 중국이 개방된 이후인 1992년에 중국어로 번역되었고²⁰⁾, 기타 원고들도 일부 중국어로 간행이 되어서 포노소프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²¹⁾. 하지만 그가 흑룡강성박물관에 남겨놓은 하얼빈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연구목록 및 유적자료 집성의 원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수집한 여러 자료 중에서 퉁구스 계통인 솔론(solon, 索倫)인과 관련된 민족학적 자료와 여러 archives는 샌프란시스코의 러시아문화박물관(Museum of Russian Culture)에 소장되어 있다²²⁾.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흑룡강성박물관, 호주 퀸즈랜드대학, 샌프란시스코 러시아문화 박물관 등에서 확인한 포노소프의 자료 어디에서도 발해 상경성 조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포노소프로부터 자료들

18) 한편, 포노소프는 해방 후에 한국의 구석기시대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顧鄉屯 유적을 조사한 것으로 한국 고고학과의 인연이 있다. 김정학은 1958년 논문에서 일제강점기에 直良信夫가 조사한 함경북도 동관진유적을 顧鄉屯 유적과 비교하여 구석기시대 유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顧鄉屯은 당시로서는 만주일대에서 유일한 구석기시대 유적이었다. (김정학, 「韓國에 있어서의 舊石器文化의 問題」, 『고려대학교 논문집』 3호, 1958. 참조).

19) 윤휘탁, 2012, 「근대 만주의 러시아인 사회와 민족관계」, 『동북아문화연구』 제 32집.

20) B·B·包諾索夫 著 張太湘 吳文銓 譯 楊虎 校, 1992 『北滿考古學史』, 『黑龍江考古民族資料譯文集』 (第一輯) (吳文銓 主編) 1992

21) 『黑龍江考古民族資料譯文集』 이외에 『北方文物』에 이들의 자료가 일부 공개가 되었다. (B.C. 馬卡羅夫, II·M雅科甫列夫在成高子和舍利屯車站之間的遺址里搜集的藏品述要 『黑龍江文物叢刊』 4期, 1984. (원문은 1950년에 발표됨))

譚英傑, 「解放前俄國人在黑龍江的學術團體及其考古活動簡述」, 『北方文物』 2期, 1986.

K·A·熱列茲涅柯, 「阿什河下游河灣地帶考古調查收穫」, 『北方文物』 1期, 1983.)

22)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장되어 있는 포노소프의 자료는 또 다른 하얼빈 출신의 고고학자인 루카쉬킨이 제공한 것이다(메나이렌코 2008).

을 건네받았다는 原田淑人이 작성한 『東京城』의 발문을 참고한다면, 당시 그가 발굴한 기록, 사진, 도면 등은 모두 동아고고학회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포노소프가 신중국 성립이후에도 하얼빈을 떠나지 않고 1961년까지 남았던 이유가 바로 남아있는 유물과 자료의 정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조사한 유물의 경우 당시 하얼빈학자들이 조사했던 다른 유물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흑룡강성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포노소프의 상경성 조사

먼저 포노소프가 상경성을 조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자. 유감스럽게도 현재 남아있는 그의 기록에서 그가 왜 동경성을 조사하고 발해고고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아마 그는 자신의 1차 조사가 곧바로 동아고고학회로 넘어가게 되고 본인은 빠지게 되어 실망하게 된 것도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다만 몇 가지 정황증거로 그의 조사 배경을 추정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포노소프의 조사 당시 발해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가는 반면에 실질적인 고고학적 조사는 전무했었다. 당시까지 하얼빈의 역사고고학은 포노소프의 스승격인 톨마초프가 주로 담당한 金代의 고고학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1924년에 톨마초프가 金上京인 白城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했고, 그 결과 금나라의 고고학적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다²³⁾. 톨마초프의 제자격인 포노소프가 자신의 독자적인 조사 대상으로 금대신에 발해를 연구 주제로 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²⁴⁾. 게다가 포노소프의 발굴조사가 있기 전인 1926년 11월과 12월에 포노소프는 경성제국대학의 鳥山喜一은 동경성을 답사하여 발해의 유적임을 재확인했다²⁵⁾. 1년 후에 이 지역을 재차 답사한 토리이 류조(鳥居龍藏)의 기록에도 상경성의 답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²⁶⁾. 이와 같이 그의 조사 직전에 일본에서의 팽배한 발해에 대한 관심과 그의 흑룡강성 일대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이 맞물려서 상경성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러한 포노소프의 관심에 맞물려서 때마침 당시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

23) 알킨, 1994, 중국에서 톨마초프의 활동 『제 2차 베르소프 기념논문집』 예카테린부르크 (노어).

24) 일본의 문헌에서는 白鳥庫吉의 답사를 발해 상경성의 조사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白鳥庫吉은 단순히 개 주변지역을 답사한 것이지 정식 고고학적 조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25) 鳥山喜一, [渤海國上京龍泉府の遺址に就いて] [滿鮮文化史觀] 刀江書院, 1935. 토리야마 기이치의 발해조사와 그가 발굴한 유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양시는, 「일제강점기 유적조사와 그 의미」, 『고구려 발해연구』, 고구려발해학회, 38호, 2010.)

26) 鳥居龍藏, 『滿蒙の探查』, 1928.



〈사진 3〉 1931년 포노소프의 동경성 발굴조사단 출정기념사진(1931년 9월 10일 하얼빈역 촬영) 우측에서 5번째가 포노소프, 좌측에서 3번째가 아네르트

진했던 흑룡강성 동남지역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포노소프의 조사는 하얼빈의 역사, 지리, 고고,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같이 조직한 종합조사단의 일원으로 이루어졌다. 1931년 9월에 동성특구문화발전연구소²⁷⁾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금을 모아서 寧安地域을 중심으로 하는 北滿 東部地域 조사단²⁸⁾을 출범시켰다(이하 ‘조사단’으로 약칭). 이 조사단의 조직을 보면, 단장은 E.E. 아네르트²⁹⁾였고, 중국 측의 代理人으로는 殷寶興이 선임되었다³⁰⁾. 단장 밑으로는 모두 3개의 연구부가 조직되었다(사진 3). 지질부는 아네르트와 튜세프(Tyusev)가, 동식물부는 A.S. 루카쉬킨과 프리소프(Prisov)가 담당했다. 그리고

27) 원문은 Институт Изучения Особого Района Восточных Провинции이다.

28) 공식명칭은 Экспедиция в Восточные уезды Сев. Маньчжурии이다.

29) 1865~1945년 생몰. 만주지역의 지질학 탐사를 주도하고 흑룡강성에서 박물관을 건립할 때에 주도적으로 한 인물이다.

30) 중국 측의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다. 포노소프의 보고서를 번역한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에서는 殷寶興을 尹贊勛으로 표기했는데, 포노소프의 다른 보고서(포노소프 1992)에서는 윤찬훈은 원래는 지질연구분과에 속해있지만 잠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포노소프 자술의 보고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서는 殷寶興으로 표기한다.

고고학적 유적을 담당하는 고민족부(Палео-этноголия)는 포노소프가 담당을 했다. 그의 고 인류 팀에는 M.B.나폴레프와 李望才 및 尹贊韻 등이 참여했다. 포노소프가 맡은 고고학과 트을 중심으로 본다면 흑룡강성 동남부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상경성인 바, 자연스럽게 상경성의 본격적인 조사를 계획했던 듯 하다.

포노소프 조사단의 조사는 비단 상경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흑룡강 동남부의 전반적인 발해시기 유적 조사의 일환이었다. 전체 조사단의 지질부와 동식물부는 영안과 穆陵河 일대를 비교적 넓게 조사했지만, 고민족부는 상경성과 경박호일대의 발해 유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포노소프의 발굴단은 1931년 9월 10일~10월 25일 간 약 45일에 걸쳐서 상경성을 비롯하여 목단강과 경박호 일대의 발해유적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 45일의 조사 보고서가 바로 『東京城』에 수록되었다. 포노소프 발굴단의 조사 일정을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거³¹⁾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노소프 팀은 하얼빈을 출발하여 먼저 牧丹江과 綏芬河의 합수머리에 설치된 동청철도 乚河站(현재 牧丹江市 鐵嶺鎮 愛河站)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발해의 장성(東邊牆)을 조사했다. 그 다음으로는 牛場, 京京城 부근, 三江屯, 城牆拉子, 松乙溝, 二站盆地 등에서 발해의 성터를 발견하였으며, 그 외에도 금대의 성지 4건도 조사했다. 또한 상경성을 조사할 당시에는 근처에 위치한 三靈屯 발해고분을 조사하여서 이미 도굴되었음을 확인했다. 상경성 이외에도 牛場과 南湖頭(금대 유적) 등에서는 소규모이나마 발굴을 했으며, 삼령둔 고분에도 시굴트렌치를 넣어서 조사했지만, 그 자세한 정황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노소프의 발해조사단의 조사경로를 복원하면 乚河站(현재의 愛河站) → 寧古塔(현재의 寧安市) → 東京城 → 鏡泊湖 → 南湖頭 → 二站(현재 지명 불명) → 海林站 등이 된다(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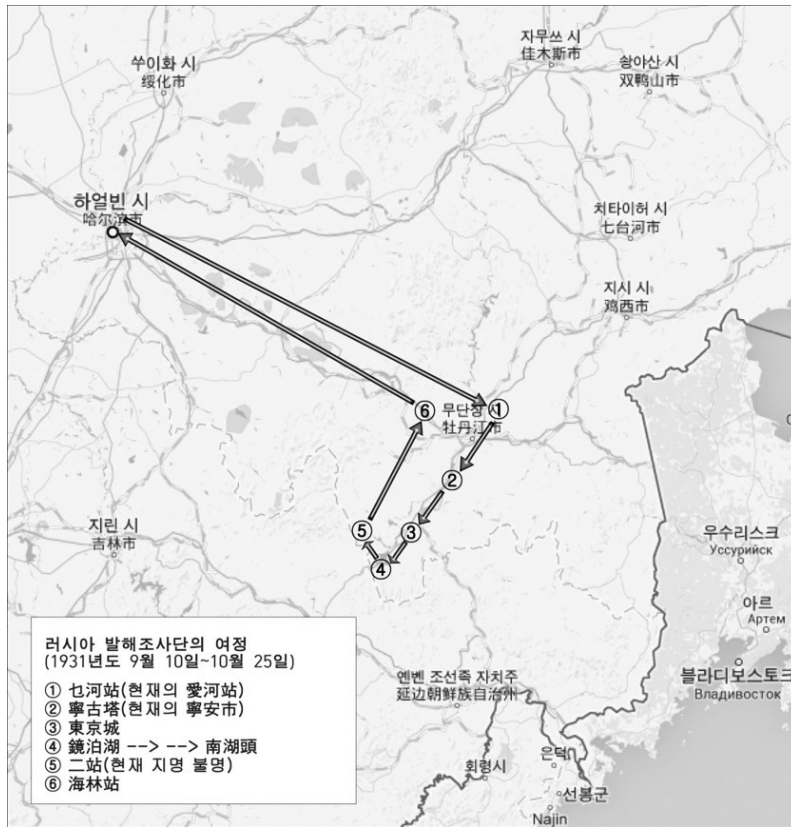
다음으로 포노소프의 상경성 발굴조사를 그가 보고서에서 서술한 순서에 따라 전체 현황, 발굴, 출토유물이라는 3부분으로 살펴보자³²⁾.

31) 포노소프의 보고서는 1932년에 10월 20일에 완성되었고, 실제 출판된 것은 1939년도의 『東京城』 보고서의 부록으로 실렸다. (이하 '보고서'로 약칭)(В.В.Поносов(Институт Изучения Маньчжури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о разведке развалин Дунцзин-Чэна, 『東京城』 東亞考古學會, 1939.)

32) 본고는 발해 상경성에 대한 학사적 검토가 중심이기 때문에 발해 상경성의 건축 및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해설을 가급적 생략하고 당시 러시아 발굴단의 발굴기술 및 인식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보고자. 최근 발해 상경성에 대한 전면적인 보고서의 출판에 따라 한국에서도 발해 상경성의 구조와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새로운 논저들이 출판되었다.

(이병진, 「발해 상경성의 건축조영과 형식」, 『고구려발해연구』 제 45집, 고구려발해학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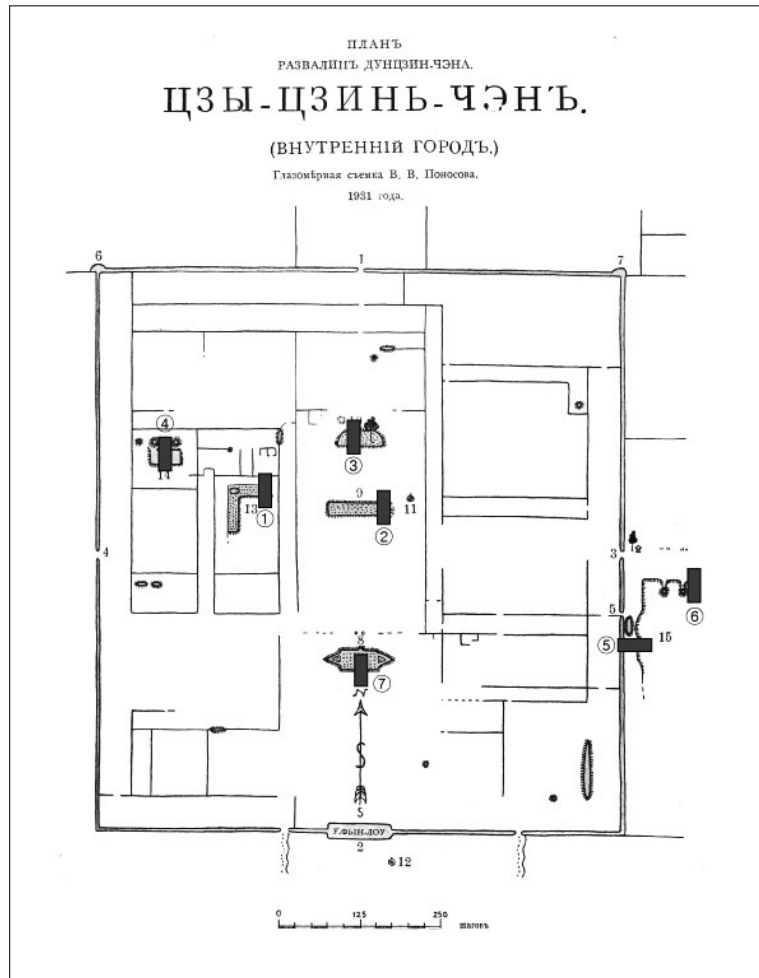
김은옥, 「발해 상경성의 발굴 및 고고연구 현황」, 『고구려발해연구』 제 45집, 고구려발해학회, 2013.).



〈지도 1〉 포노소프 발굴단의 여정

먼저 전체 현황은 평면도에 제시된 것으로 잘 알 수 있다(도면 1). 포노소프 일행은 ‘자금성’이라고 명명한 상경성 궁전지의 중심부를 조사했는데, 그는 최근 중국 발굴성과를 참조³³⁾ 하던 中宮일대에 해당한다. 그가 제시한 도면과 서술을 참고하면 포노소프 일행이 확인한 유구는 외성북문(1), 오봉루(2), 중궁의 서북과 동북벽 모서리에서 각루(6, 7), 제 1궁전(8), 제 2궁전(9), 제 3궁전(10) 등을 표시했다. 4궁전의 경우 3궁전과 회랑으로 서로 이어졌기 때문에 3궁전과 같이 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5궁전은 따로 미미하게 표시되었는데, 실제로 거리도 떨어져있고 건물 성격이 달랐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외에도 우물지(11) 이 표시되었다. 또한, 동벽과 서벽의 중간에도 문이 있는 것을 표시했다(3, 4, 5). 또한 동벽의 문지 바로 밑에도 문지같은 것이 있지만 현대의 파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한편, 포노소프 도면의 동벽 바깥(15번)은 동궁지로 禁園(어화원)의 자리에 해당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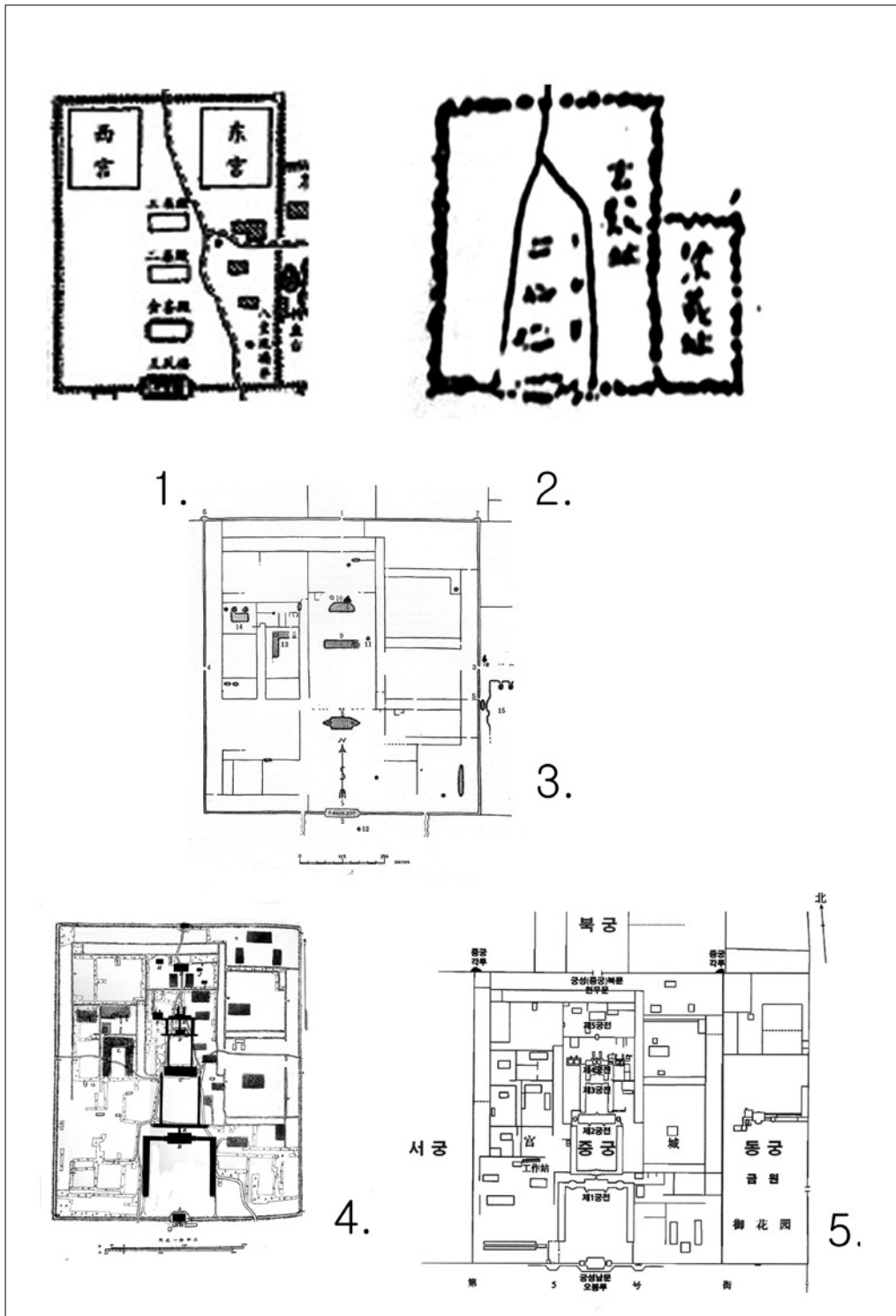
33) 상경성의 주요 유구에 대한 분석은 (이병건, 2013 전게서)를 주로 참고했다.



〈도면 1〉 포노소프의 상경성 발굴평면도 및 발굴구역(1932년 작성, 육안측량, 발굴구역은 필자가 가필함)

에 실제로 그 자리의 레벨이 낮은 웅덩이로 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포노소프의 평면도를 검토해 본 결과 육안으로 작성한 도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면도의 정확도 및 유구의 관찰은 상당히 정확하여, 최근에 측량된 도면과 비교해 볼 때에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궁 북부의 각루나 오봉루 옆의 문지, 동서벽의 문지 등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이는 또한 당시 하얼빈 고고학자들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포노소프의 도면은 향후 동아고고학회와 신중국의 발굴도면과 거의 차이가 없다(도면 2).

포노소프가 오봉루라고 한 곳을 동아고고학회의 보고서에는 ‘궁전지’라고 한 점에서 서로 다르다. 실제로 포노소프의 발굴 이전에 간행된 『寧安縣志』에서는 오봉루, 금만전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던 바, 포노소프 일행은 영안현지의 기록을 조사에 주로 참고했음이 짐작된다.



〈도면 2〉 발해 상경성 관련 도면 (1-영안현지(1922), 2-鳥山喜一(1939), 3- 포노소프 작성(1932년), 4-동아
고고학회(1939), 5-중국의 최근발굴보고서(상경성 보고서 2009))

다음으로 포노소프 조사단의 발굴을 살펴보자. 조사단은 9월 20일부터 하루에 1개 정도의 속도로 트렌치를 넣어서 조사했다. 그 정확한 위치는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의 기술로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도면 1의 표시부분 참조). 제 1트렌치는 자금성(中宮)의 서북쪽에 ㄱ자로 꺾인 건물지(도면 1-13)에 넣었고, 그 다음 날(21일)에는 한 가운데의 건물지(도면 1-9번)의 2궁전 위를 발굴해서 4열의 석열을 확인했다. 제 3트렌치는 제 3궁전지(도면 1-10)에 넣었다. 트렌치는 주로 남북으로 넣어서 석열을 확인하고 기와 및 하부의 층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건물의 평면형태와 축조방법을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을 수 있다. 제 4트렌치는 초석열이 없는 서북쪽의 둔덕(도면 1-14)를 조사했다. 제 5,6트렌치는 ‘자금성’의 동벽 지역에 트렌치를 넣어서 이 지역의 연못지(어화원)과 그 일대에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건물지 2동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포노소프 조사대가 예상했던 대로 이 연못은 인공연못이며, 그 주변의 둔덕에는 정자와 같은 건축물이 놓였음을 확인했다. 제 7트렌치는 제 1궁전지(도면 1-8)에 설치해서 석열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계단의 흔적들도 발견했다.

포노소프 발굴단의 트렌치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7개로 제한되었지만 3개의 궁전지, 동벽의 원지, 그리고 궁전에 부속된 건물지 등에 골고루 설치되었고, 그 목적은 전반적인 유구의 배치와 건축기법 등의 확인이었다.

세 번째로 출토 유물은 모두 1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 1) 건축용 벽돌, 2) 문양이 있는 벽돌, 3) 기와, 4) 건축용 목재(6번 트렌치) 5) 벽체편, 6) 사유토기(이 중에는 괴수문의 치미편도 포함되어 있는 듯함). 7) 100여점의 명문이 찍힌 기와, 8) 회색토기, 9) 홍의가 입혀진 거친토기 등이 주요 발굴품에 해당한다. 그 이외에도 후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10) 격쇠가 달린 토제품, 11) 근처 농민이 준 泥製불상편, 12) 철정 등 각종 금속제 유물, 13) 근처 주민으로부터 구입한 철제 투구, 14) 석제 대좌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자금성’ 안에 있었다가 후에 옮겨진 15) 석제 향로를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유물 설명을 종합하면 1~9는 실제 발굴을 통한 출토품이고 10~14는 지표수습 또는 구입품에 해당한다. 포노소프의 서술은 토기, 석기, 청동기 등 용도나 재질에 따라 서술하는 일반적인 고고학적 유물의 설명과 다소 다르다. 하지만 그 이유는 포노소프가 언급하는 유물들은 모두 하얼빈박물관으로 가져온 것만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즉, 유물들이 박물관에 등록되어 진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 설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고서의 형식과 다른 것이다. 당시 조사단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이 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교통사정이 매우 열악했던 바, 박물관에 진열할 수 있는 유물들만 엄선해서 박물관으로 옮겼던 듯 하다. 현재 흑룡강

성박물관이 이 당시 러시아인들이 세운 박물관을 그대로 계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까지 진열되고 있는 이전에 수집된 발해유물들의 상당수는 포노소프가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포노소프 조사단의 발굴성과를 살펴보았다. 당시 사진 및 도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모두 동아고고학회에 건네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알 수 없다. 분명한 점은 이들의 발굴은 1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적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비교적 정확한 평면도를 통하여 다양한 유구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연구수준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III. 고찰 : 포노소프 조사의 배경과 영향

1. 19세기 러시아의 동방학과 하얼빈 고고학파의 성립

흑룡강 하얼빈에 정착했던 러시아인들이 짧은 시간에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의미 있는 발굴조사와 업적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얼빈의 러시아고고학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19세기 이래 꾸준히 동양 고대사를 번역 소개했던 러시아 동방학자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러시아 학계에서 발해 상경성은 이미 19세기부터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발해 상경성에 처음 주목한 학자는 19세기 초반에 북경소재 러시아정교회 신부로 근무하며 중국의 고대사에 대한 여러 문헌을 번역하고 정리한 러시아정교회의 신부 안키프 비추린(Yankiff Bichurin)이다. 그는 1842년에 출판된 “중국왕조의 통계적 기록”이라는 저서³⁴⁾에서 東京城을 발해가 아닌 금나라의 것으로 보고 금의 會寧府로 비정했다. 이에 반하여 V.P. 바실리예프는 1857년에 출판된 “만주지” 및 “영고담에 대한 기록”³⁵⁾에서 그의 설을 반박하고 금나라의 회령부는 阿城縣이며, 東京城은 발해의 상경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³⁶⁾. 이와 같이 러시아 동방학계에서 19세기의 논쟁은 역사기록에 근거하여 이 성지를 사용한 사람들을 금또는 발해로 비정하는 문제였다.

러시아의 학계가 다른 서구의 여러 나라에 비해 빨리 중국의 고대사료를 숙지하고 중국

34) 비추린 1842, 『중국제국의 통계적 기록』, 상트-페테르부르크. (노어)

35) 바실리예프가 상경성을 발해로 비정한 근거는 고고학적 자료가 아니라 송나라의 사절단이 금나라의 제 2대 황제 太宗(우키마이)에게 가는 길에 근거한 것이다. (바실리예프 1857 『만주지』왕립러시아지리학회 총서 12권.) (노어)

36) 포노소프 1932에서 재인용.

동북지역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알바진(Albazin)요새 사건 이후 북경 일대에 거주하던 러시아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파견한 러시아 정교회의 북경 사절단이 있었다. 특히 안키프 비추린은 이 북경소재 러시아정교회 사절단의 제 10대 사제로 파견되어(1806~1821년 복무) 발해를 비롯하여 중국 정사 25사에서 동이족에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연구서들을 간행했다. 이와 같이 19세기 이후 러시아에서는 만주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의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얼빈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러시아 학자들은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비교적 짧고 제한적인 기간에 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해, 말갈, 선비 등 민족적 실체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엽의 하얼빈 지역 고고학연구는 이러한 19세기의 동방학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하얼빈은 19세기말 이래 러시아가 동청철도를 건설하면서 세워진 도시로 러시아 혁명 등의 여파로 제정러시아 시절의 인텔리들은 하얼빈에 모여들었고, 이에 동청철도와 관련한 학문적 활동을 개시했다. 이에 러시아지리협회도 하얼빈지부가 개설되었고³⁷⁾, 1923년에는 박물관도 건립되었다. 이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동방진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고고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³⁸⁾. 하지만, 하얼빈의 고고학자들은 제정러시아의 붕괴와 소련의 성립에 따라 무국적자가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³⁹⁾. 즉,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새로 정복한 지역의 조사를 했던 일본의 조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고, 결과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즉, 일본과 달리 한국이나 중국과 역사적으로 얽혀있지도 않았고, 정부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이었던 유럽의 고고학을 직접 수용했었다. 이런 탓에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만주지역의 여러 고대문화를 연구할 수 있었다.

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은 흑룡강성 일대의 고대문화 발전 체계를 규명하기 위한 하얼빈 고고학자들이 진행했던 일련의 작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하얼빈의 러시아 고고학자들 대표적인 잡지인 東省雜誌(Manchuria Monitor)를 중심으로 보면 하얼빈 고고학자들(특히 톨마초프)은 처음 이 지역에서 연구회를 세운 이후 지속적으로 금나라의 白城유적을 조사했다. 따라서 만주 지역의 고대 국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금나라 이외의 다른 시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금 이전에 이 지역에서 최초로 나라를 세운 발해로 관심이 옮겨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7) 러시아지리협회 하얼빈지부는 제정러시아의 붕괴에 따라 1926년에 동성문물연구회로 통합되었다.

38) 최덕경, 「만주에서의 러시아」,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한석정, 노기식 편, 소명출판, 2008.

39) 소비에트 정부에서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무국적자가 되었음.

실제로 하얼빈의 러시아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의 역사시대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해왔다. 가장 먼저 톨마초프가 금나라의 고고학을 발견하고, 이후 포노소프가 상경성의 발해를 조사했다. 또한 포노소프는 1934년에 根河 상류에서 일명 ‘징기스칸의 邊牆’으로 알려진 上庫力村, 拉布達林 등 3곳의 성지를 조사하고 그 시대를 遼代로 비정했다. 1946년에는 AK. 켈레즈나코프가 阿什河 유역의 黃家崴子를 발굴해서 황가외자의 유물들이 중세시기(발달된 철기)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토기상에서 발해보다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켈레즈나코프는 발해의 고고학적 문화와 유사하나 수제로 만든 원시적인 토기(즉, 靺鞨罐)를 말갈의 소산으로 간주하고, 황가외자 유적을 말갈의 安車骨部로 비정하여 말갈의 고고학적 실체를 최초로 규명했다. 하얼빈 지역은 아니지만 이들의 활동 이전인 19세기 말에 자바이칼에서 활동하던 탈코-그린체비치가 흉노의 고고학적 실체를 규명하였으며⁴⁰⁾, 톨마초프가 유림푸라는 유적일대에서 선비문화에 속하는 청동 동물장식을 보고하였다⁴¹⁾. 이상과 같이 20세기 초반 하얼빈 고고학자들의 연구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편년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흉노-선비-말갈-발해-여진-요 등의 중세 고고학의 편년체계가 완성되었다⁴²⁾.

또한, 하얼빈 러시아인의 고고학적 연구는 제정러시아 시대의 고고학적 전통에 근거하여 하얼빈의 고대를 체계적이며 지질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제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제정러시아가 멸망하고, 이후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은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역설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식민지 침탈 및 제국주의적 고고학과는 태생적으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입장은 만선사관에 근거하여 이 지역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일본 고고학계와는 대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이 없이 중국 동북지방(만주) 지역의 고대문화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나아가서 이후 신중국 성립이후 흑룡강 지역의 고대문화를 연구하는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40) 탈코-그린체비치, 1999(1899), 『자바이칼 지역의 고민족학자료』 흉노유적총서 제 4권, 상트-페테르부르크.

41) 톨마초프 1929 만주의 스키토-시베리아 문화의 흔적 『東省雜誌』 제 6권

42) 선사시대에서는 구석기유적은 顧鄉屯, 초기 신석기시대 용기문토기의 유적인 昂昂溪, 자이사노프카 문화 계통 신석기시대 유적(亞布力 유적), 스키토-시베리아 계통의 청동기, 望海屯 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하얼빈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술하겠다.

2. 동아고고학회의 발굴에 미친 영향

포노소프의 상경성 발굴은 연차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이후 만주국의 성립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 사정은 급하게 바뀌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자행한 柳條湖事件(1931년 9월)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1932년 2월에 하얼빈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포노소프의 발굴은 곧 이른 일본의 만주침략으로 그 발굴의 주도권이 일본에 넘어감에 따라 2년 뒤에 이어지는 동아고고학회의 발굴을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전락했다.

동아고고학회는 1925년에 일본 교토대학의 濱田耕作과 동경대학의 原田淑人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당시 동아시아 각지로 진출하는 일본세력에 발맞추어 각지의 고대문화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일체의 지원을 일본정부로부터 받는 일종의 어용단체였다. 동아고고학회는 설립 초기인 1927년부터 발해 상경성 발굴을 계획하고 있었다⁴³⁾. 동아고고학회가 발해에 주목하게 된 1차적인 이유는 20세기 초반부터 白鳥庫吉은 만선사관⁴⁴⁾을 주창하며, 그의 사관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제를 발해로 보았기 때문이다⁴⁵⁾. 게다가 1920년대 이후 만주지역에 대한 침략이 구체화되면서 일본 학계에서는 만선사(滿鮮史)의 성립을 상징하는 발해조사의 시급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학자들의 흑룡강 지역에 대한 조사 경험은 당시까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만주지역의 발굴에서 자신들의 경험부족과 조사의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포노소프가 자신이 발굴한 도면과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일본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했다. 왜냐하면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은 무국적자로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고, 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대화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면서 자신들의 지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포노소프의 자술에 따르면 만주국의 성립 이후 러시아인들의 연구에는 많은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⁴⁶⁾. 하얼빈의 연구소들은 신경(장춘)에 세운 대륙과학원에 통합되었고, 이후의 조사는 소규모화 되었고, 昂昂溪와 같은 주요 유적들에 대한 조사도 점차 일본학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43) 酒寄雅志, 「東亞考古學會の東京城調査」, 『東亞考古學會と近代日本の東アジア史研究』, 平成 16年度~平成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2007.

44) 박찬홍, 「白鳥庫吉과 ‘만선사학’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호, 2009.

45) 만선사관에서 발해 상경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만선사관의 주창자인 白鳥庫吉이 1910년에 직접 발해 상경성을 답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6) 포노소프, 1959(1992) 전제서.

이와 같이 동아고고학회가 발해 상경성의 발굴에 개입하게 되면서 발해 발굴의 목적은 만주지역의 역사전개 과정의 규명에서 만선사관의 증명으로 바뀌었다. 일본학계의 발해에 대한 조사는 바로 만주지역을 일본의 판도에 편입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에 조응하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문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그러한 일본 정부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滿蒙은 漢民族의 영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日本, 필자 첨가)와 관계가 밀접하다. 민족 자결을 주장하는 자는 만몽이 만주 및 몽고인의 것이고, 만주 몽고인은 漢民族보다도 오히려 아마토 민족에 가까운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⁴⁷⁾

동아고고학회는 표면적으로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의 고고학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순수한 학문 단체를 표방했지만, 일본 외무성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⁴⁸⁾ 그들의 어용적인 성격은 태생적인 것이었다. 즉, ‘내선일체’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朝鮮古蹟調査事業이었다면, 동아고고학회는 한반도를 제외한 요동반도, 흑룡강성 일대를 비롯한 만주지역을 조사하여 ‘만선사관’의 정립에 1차 목표를 두었다. 이후 일본은 만주 지배를 공고히 하고 그들의 영토를 중국, 내몽고 등으로 확산함에 따라 河北, 山東, 內蒙古 등으로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대동아사관’의 정립에 동원되었다⁴⁹⁾.

동아고고학회 발해 상경성 발굴대는 1933~1935년에 이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노소프의 발굴자료들에 근거해서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포노소프의 발굴 의미를 축소하고 조사에서 배제했다. 포노소프의 발굴보고는 동아고고학회의 『東京城』 보고서의 말미에 부록 형식으로 번역없이 러시아어로만 실렸고, 평면도 이외에는 별다른 도면이나 사진도 첨부되지 않았다. 原田淑人은 포노소프와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47) 外務省 편, 『日本外交 年表 및 主要文書(2)』, 日本國際聯合協會, 1955, p202(아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에서 재인용).

48) 실제로 동아고고학회는 자금을 대부분 외무성 문화사업부에 받았는데, 그 재원은 의화단의 난의 결과로 일본이 받은 배상금이었다(酒寄雅志, 2007 전거서).

49) 해방이후의 회고에 따르면 한반도의 고적조사사업에 관여했던 쿠로다 카스미(黑板勝美)는 1940년대에 대동아박물관의 계획을 수립했고, 그 관장으로 藤田亮策을 구상이었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 만주 --> 중국으로 확장되어가는 일본의 영토에 합당한 새로운 역사체계를 수립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桑田六郎 外, 『先學語-藤田亮策先生-』, 『東方學』 第 64集, 1982에서 中川成夫의 발언)

“또한 제 1회 조사 즈음에 하얼빈 동성문물박물관 소속의 러시아고고학자 포노소프씨는 2년전 (1931년)에 행한 동경성방면의 답사개보와 사진 십여 매를 일행에게 주었기 때문에, 일행은 여기에 의지하여 조사하는 데에 여러 편의를 보았다. 권말에 첨부한 노문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고 본서의 기사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따로 일본어 번역은 첨부하지 않았다. 또한 그 사진도 본 서의 도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했다...”

이 머리말에서 두 가지 점이 간췌된다. 첫 번째로 포노소프의 모든 발굴자료와 사진은 동경고고학회 쪽에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포노소프와 관련한 아카이브에서 동경성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었는데, 이때에 모든 자료가 건네졌기 때문인 듯 하다. 그리고 1933년도 1차 조사에서 포노소프를 비롯한 하얼빈의 고고학자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 대신에 중국의 역사학자인 金毓黻이 조사단에 포함되었다. 이후 3년간의 조사 어디에서도 러시아학자들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두 번째로 동아고고학회는 포노소프의 발굴의미를 애써 축소하려한다는 점이다. 포노소프는 ‘답사’가 아니라 하얼빈의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조사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발굴조사였다. 포노소프 팀의 조사기간은 전체 45일로 동경성을 비롯하여 목단강과 모퉁하 일대의 발해유적을 조사했으며, 동경성에서는 12일간 발굴을 했고, 7개의 트렌치를 넣었다. 물론,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소형이지만, 1930년대 초반으로 본다면 대규모 발굴단이었다. 당시 동아고고학회 역시 1933년의 조사는 20일도 안 되는 기간 뿐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포노소프의 조사를 ‘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포노소프의 기록이 소략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사진과 도면이 생략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포노소프의 보고서에는 다양한 부분에 트렌치를 넣어서 유구 성격 및 토층을 밝혀냈으며, 다양한 출토유물들도 수습되어서 기록이 간단하며 답사성격이라는 그의 지적과는 다르다. 그리고 당시 동아고고학회는 중국과 하얼빈의 고고학자들과 교류를 하며 遼東半島의 발굴장이나 일본 東京으로 초청했었다. 하지만 포노소프와 같은 발해와 관련된 러시아 학자들과의 교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동경성』 보고서에도 별다른 도면이나 번역이 없이 노어 원문으로만 포노소프의 보고서를 실었던 것또한 그의 성과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고고학회는 왜 포노소프의 발굴과 하얼빈 고고학자들의 발해 연구에 대해서 그리 축소하려고 했을까를 생각해보자. 동경성 발굴의 책임자인 原田淑人이 동경성 조사에 따른 예산신청을 한 내부문서로 1933년 4월에 외무성문화사업부으로 제출된 [吉林省內務渤海國都城址調査費豫算書]에는 原田淑人은 상경성에 대한 발굴을 서둘렀던 이유를 러

시아 및 중국학자들이 상경성의 조사를 이미 행하고 있었음을 들어서 그 선수를 빼앗길 것을 걱정했다⁵⁰⁾. 일본이 빨리 조사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게 기회를 뺏길 것으로 우려한 이 대목은 바로 하얼빈 고고학자들의 조사를 의미함은 자명하다. 당시 동북지역에 중국의 학자로 진위푸(金毓黻)가 있지만, 그는 역사학자일 뿐 독자적으로 고고학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국 사람은 없었다. 물론, 이 ‘예산서’는 일본 정부의 연구비를 얻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제 동아고고학회의 발굴에 포노소프를 비롯한 하얼빈의 고고학자들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은 ‘예산서’의 기록이 상당히 사실에 근접함을 말해준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原田淑人이 신문에 기고한 ‘금희의 조사발굴은 순연히 學徒(학자)의 입장이며 발해의 유적조사는 정치적인 중요성과는 전연 관계가 없이 이루어졌다. 사업의 주체는 외무성의 만몽조사기관이라고 하는 순연한 학도적인 입장...’⁵¹⁾이라는 홍보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상경성의 발굴이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일본 외무성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한 동아고고학회로서는 러시아인 포노소프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발해의 고고학을 일본이 독점해서 만주국의 성립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려하는 그들의 이해에 부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포노소프를 비롯한 하얼빈의 러시아 고고학자들은 만주국 성립이후 발해의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포노소프 자신도 『동경성』에 수록된 보고서 이외에 더 이상의 논고를 발표하지 않았다. 발해사 및 발해 고고학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사용해야할 만주국의 체제 하에서 러시아인들의 발해 연구는 결코 쉽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1920년대에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이 시작한 발해 고고학은 동아시아의 고대사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일본의 만주침략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의 생성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다. 기존의 발해 고고학에 대한 학사적 검토에서는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간과되었기 때문에 발해 고고학의 시작이 마치 일본의 만주침략을 위한 도구로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뒤덮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노소프의 발굴을 재조명함으로써 발해 고고학의 시작은 만주침략 이전에 흑룡강성 일대의 역사와 고고학 문화를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50) 酒寄雅志, 「東亞考古學會の東京城調査」, 『東亞考古學會と近代日本の東アジア史研究』 平成 16年度 ~平成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2007, p.2.

51) 原田淑人이 작성한 『やまと新聞』 1933년 10월 16일 기사.

IV. 결론 : 만주의 폼페이와 포노소프

본 고에서는 1931년 9~10월에 이루어진 포노소프의 발굴을 통해 발해 고고학의 성립에서 하얼빈 고고학자들의 숨겨진 역할을 재조명했다. 포노소프의 발해발굴은 급박한 정치상황과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하얼빈의 고고학자들이 전력을 다해서 일구어낸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들의 조사 이후 곧바로 하얼빈을 비롯한 만주는 일본의 판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발해발굴은 동아고고학회 측으로 넘겨졌다. 이에 동아고고학회에 의해서 포노소프를 비롯한 러시아 발굴단의 노력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만주지역의 조사를 전담하여 만주를 일본의 역사에 연결시키려는 일본정부의 계획과 만선사관에 따른 연구경향 때문이었다. 발해 상경성의 조사에서 포노소프의 역할은 재평가 받아야함은 물론, 나아가서 포노소프가 속해있었던 하얼빈의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흑룡강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편년체계를 세움으로써 이 지역의 고고학에 공헌했음이 분명한바, 이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사 연구에서 재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東京城』 보고서에 부록으로 실린 포노소프의 동경성 발굴조사 보고를 볼 때에 그의 조사는 상당히 정확한 유구평면도와 트랜치를 통한 유구확인, 출토 유물의 박물관 전시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1930년대에 동아시아에서도 매우 수준 높은 연구였다. 또한, 그의 뒤를 이은 동아고고학회의 조사는 포노소프의 자료와 조사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포노소프의 상경성 발굴은 발해 고고학의 효시가 되는 조사로 자리매김 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발해 발굴의 시작을 동북아시아를 침략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발흥과 함께 이 지역을 조사했던 동아고고학회의 발굴로 인식했던 과거의 인식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포노소프의 조사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들이 경쟁적으로 상경성을 조사, 연구하며 각국의 발해상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발해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고고학에서 ‘첫단추’를 끼웠던 러시아고고학자들의 연구는 분명히 재평가 받아야할 것이다.

포노소프는 상경성 발굴 보고서에서 발해 상경성의 중대성을 직감하고 ‘만주의 폼페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2차 발굴을 기획했다. 하지만 그의 발굴은 2년 뒤인 1933년부터 이루어진 동아고고학회의 발굴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만주국 시절 포노소프 자신도 발해고고학의 연구에서 배제가 되었다. 그가 명명한 ‘만주의 폼페이’는 대륙 침략의 구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고대문화의 진면목을 밝힐 수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었다. 발해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극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주변의 여러 나라와 교류했던 발해의 국제성에서 기인

한다. 발해는 당나라와 갈등과 교류를 반복하며 한편으로 신라와도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동해를 건너 일본에는 대륙의 선진문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동북아시아 북방의 寒帶에 거주하던 여러 소수민족들은 물론 중앙아시아와도 교류한 흔적들이 보인다. 이러한 발해의 국제성은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보듯이 연구의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발해가 주변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며 발전하였듯이, 이제는 발해의 연구를 갈등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연구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80여년이 지난 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을 21세기에 되새김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참고문헌〉

1. 한국어

- 강인옥, 2001, 「17~18세기 시베리아 고고학의 형성과 발전」, 『러시아연구』 11-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강인옥, 2009, 『춤추는 발해인』, 주류성.
- 김은옥, 2013, 「발해 상경성의 발굴 및 고고연구 현황」, 『고구려발해연구』 제 45집, 고구려발해학회.
- 김정학, 「韓國에 있어서의 舊石器文化의 問題」, 『고려대학교 논문집』 3호, 1958.
- 박찬홍, 「白鳥庫吉과 ‘만선사학’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호, 2009.
- 윤휘탁, 2012, 「근대 만주의 러시아인 사회와 민족관계」, 『동북아문화연구』 제 32집.
- 이병건, 「발해 상경성의 건축조영과 형식」, 『고구려발해연구』 제 45집, 고구려발해학회, 2013.
- 최덕경, 「만주에서의 러시아」,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한석정, 노기식 편, 소명출판, 2008.

2. 중문 및 일본

- 『やまと新聞』 1933년 10월 16일
- 『寧安縣志』 1921.
- K·A·熱列茲涅柯, 「阿什河下游河灣地帶考古調查收獲」, 『北方文物』 1期, 1983.
- V.V.Ponosov, 「北滿考古學史」, 『黑龍江考古民族資料譯文集』 (第一輯) 1992.
- B.C. 馬卡羅夫, И·M. 雅科甫列夫在成高子和舍利屯車站之間的遺址里搜集的藏品述要」, 『黑龍江文物叢刊』 4期, 1984.
- 譚英傑, 1986 「解放前俄國人在黑龍江的學術團體及其考古活動簡述」, 『北方文物』 2期.
- 東亞考古學會, 1939 『東京城』東方考古學叢刊; 第5冊, 東京.
- 桑田六郎 外, 「先學語-藤田亮策先生-」, 『東方學』 第 64集, 1982
- 外務省 編, 『日本外交 年表 및 主要文書(2)』, 日本國際聯合協會, 1955, p202
- 李陳奇 趙虹光, 「渤海上京城考古的四個階段」, 『北方文物』, 2期, 2004
- 鳥居龍藏, 『滿蒙の探查』, 1928.
- 鳥山喜一, [渤海國上京龍泉府の遺址に就いて] [滿鮮文化史觀] 刀江書院, 1935.
- 鳥山喜一, 『半拉城と他の史蹟』半拉城址刊行會, 1978.
- 早乙女雅博, 「渤海都城東京城調査」, 『東アジアの古代都市論』, 2005. 酒寄雅志, 編, 「東亞考古學會の東京城調査」, 『東亞考古學會と近代日本の東アジア史研究』平成 16年度~平成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2007.
- 酒寄雅志, 「東亞考古學會の東京城調査」, 『東亞考古學會と近代日本の東アジア史研究』平

成 16年度~平成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200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上·下, 文物出
版社, 2009
黑龍江省博物館, 1992『黑龍江考古民族資料譯文集』(第一輯).

3. 영문 및 논문

Jernakov. V. N., 1972, Vladimir Vasilievich Ponosov, University of Melbourn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Parkville, Vic. : Dep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Melbourne, 1972, Russians in Australia, no. 3.

PONOSOV, V.V. 1965 Results of an Archaeological Survey of the Southern Region of
Moreton Bay and of Moreton Island

Алкин С.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В.Поносова в
Маньчжурии // Вторые чтения имени Г.И.Невельского. Хабаровск, 1990. -
С.113-117. (알킨, 1990 만주에서 포노소프의 고고민족학적 연구 『제 2차 네벨스키
기념논문집』, 하바로프스크)

Алкин С.В. В.Я. Толмачев в Китае (1922-1942) // Вторые Берсовские чтения.
Екатеринбург, 1994. - С.18-21. (알킨, 1994, 중국에서 톨마초프의 활동 『제 2차 베
르소프 기념논문집』 예카테린부르크).

Алкин С.В. Материалы к изу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сских археологов в Маньчжурии
// 100-летие города Харбина и КВЖД.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 Новосибирск
- 1998. - С.(알킨, 1998, 만주의 러시아고고학자 활동에 대한 자료들 『하얼빈 및 동청
철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Бичурин Я.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описание Китайской империи, -СПб,-1842, -С.279.(비추린
1842, 『중국제국의 통계적 기록』, 상트-페테르부르크).

Васильев В. П. Описание Маньчжурии. — Записки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XII, 1857, с. 1-78; Васильев В. П. Записки о
Нингуге. — Записки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XII,
1857, с. 79-109.(바실리예프 1857 『만주지』왕립러시아지리학회 총서 12권.)

Гончаренко, О. Г. Русский Харбин, -2009,-Москва.(곤차렌코, 2009 『러시아 사람들의 하
얼빈』)

Павловская М. А. Из Истории изучения Маньчжурии Русским учеными (1932...1945
гг.), Дали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Северо-Восток Китая: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998, -Хабаровск.(파블로프스
카야, 1998, 1932~45년 러시아학자들의 만주 연구학사 『극동 러시아와 중국동북지
방 : 상호교류의 역사와 협력의 전망』).

- Карсаков, Л. П. Афанасьева И. А. Общество Изучения Мпньчжурского Края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Северо--Восток Китая: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998, -Хабаровск. (카르사코프 외, 1998, 東省의 연구사, 『극동 러시아와 중국동북지방 : 상호교류의 역사와 협력의 전망』)
- Меняйленко М. К. Деятельность Русской эмиграции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Музе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Сан-Франциско),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ё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Москва, -2008. (메나이렌코, 2008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한 러시아 이주민들의 활동 - 샌프란시스코 러시아문화박물관의 유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모스크바).
- Поносов, В.В.(Институт Изучения Маньчжури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о разведке развалин Дунцин-Чэна», 『東京城』 東亞考古學會, 1939. (포노소프, 1939, 「동경성 유적에 대한 예비보고」)
- Поносов В.В. Доисторическая скульптура из окрестностей г.Харбина //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работ пржевальцев, Харбин, 1942. С.57-63. (포노소프, 1942 하얼빈 일대의 선사시대 조각상 『프르제발스키 동호인의 논문집』, 하얼빈)
- Тумаркин, Д.Д.(Сост.)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е этнографы вып. I, II. М.: Вост. лит., -2002,-2003. (투르마킨 편, 2002, 2003 『탄압받은 민족학자들』 1,2권).
- Талько-Грынцевич, Ю. Д. Материалы к палеоэтнологии Забайкаль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Сюнну 4,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9. (탈코-그린체비치, 1999(1899), 『자바이칼 지역의 고민족학자료』 흉노유적총서 제 4권, 상트-페테르부르크.)
- Толмачев, В.Я. Следы скифо-сибир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Маньчжурии // Вестник маньчжурии, № 6, 1929. (톨마초프 1929 만주의 스키토-시베리아 문화의 흔적 『東省雜誌』 제 6권).
- Формозов А.А. Русские археологи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репрессии 1920-1940-х гг. // Россий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 1998 - № 3. - С. 191-206. (포르모조프, 1998 러시아 고고학자와 1920~40년대의 탄압 『러시아의 고고학』 제 3집.)
- Франкьен, И.Шергалин, Е.Э. Орнитолог Борис Павлович Яковлев (1881-1947)-первый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Общества изучения Маньчжурского края (ОИМК). Русский орнитологический журнал 2010, Том 19, Экспресс-выпуск. (프란켄, 셰르갈린 2010, 조류학자 보리스 파블로비치 야코블레프 - 동성연구회박물관의 첫 번째 관장 『러시아의 조류학』, 제 19호).

[abstract]

Reexamination of V.V.Ponosov' excavation on Bohai capital(Shangjingcheng),
Ning'an, Heilongjiang and the Far Eastern Archaeological Society(Toa Koko
Gakkai) of Manchuguo

KANG In-uk

In this study, author reexamines Ponosov's archaeological expedition on Shangjingcheng(or Dongjingcheng), the capital of Bohai State at Ning'an, Heilongjiang in September 1931 y.. His excavation is a part of achievements, made by Russian archaeologists and Association for Studies of Manchu Province(ОИМК) in the first part of 20 century. His excavation was carried out to reconstruct the medieval history of Manchuria, following up Tolmachev's excavation on fortress of Dynasty Jin(Baicheng). His excavation was intended to accomplish a preliminary survey for further investigation on capital of Bohai. To make it clear the plan of Shangjingcheng and detail architectures, his team dig up 7 trenches on various points of Inner Palace.

Short after his excavation, Japan built 'marionette' Manchu Empire in Manchuria. Following up colonization of Manchuria, the Far Eastern Archaeological Society(Toa-Kokogaku-kwai), motivated by Harada Yoshito and Hamada Kosaku, advanced into Manchuguo to historically justify Japanese colonization into Manchuria. As for example, they choose Bohai site of Shangjingcheng. subsequently Ponosov's further plan on Shangjingcheng was ignored simply. Since 1933 y, excavation on Shangjingcheng was continued by Harada Yoshito's team. If we compare the Ponosov' plan of inner palace with Toa archaeological team's one, and the contents of excavation, we can easily conclude that Ponosov's excavation definitely influenced on Toa archaeological team. In spite of his contribution, Ponosov's excavation was thoroughly ignored by Japan, China and Soviet archaeologists with various reasons. Japanese wanted to emphasis themselves as pioneers of Manchu history, and Chinese emphasis on autonomous academic tradition on Bohai. In the other hand, Soviet russia also ignored because Harbin archaeologist belonged to white army and was tabooed to refer.

Ponosov's excavation is significant for east-asian archaeology for some reasons as below.

Firstly, archaeologists in Harbin implanted archaeology to Manchuria for the first time. Most of them was educated by imperial russian archaeological school, so that they could show up most advanced archaeology into East Asia.

Secondly, they showed up bohai archaeology of Manchuko was a mean tool for colonialism archaeology in Manchuria. Contrast to Toa archaeological society, Ponosov's excavation was intended wholly for academic interests for Manchu history. Like this, we should rewrite the historiography of Bohai archaeology and reexamine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Russian archaeologist in Harbin.

Keywords : V.V.Ponosov, Shanjingcheng(Dongjingcheng), Bohai, Far Eastern Archaeological society(Toa Koko gakkai), Russian in Harbin, Manchuguo, Association for Studies of Manchu Province(OHMK)

